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마을



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 !



아이들의 환한 웃음이 너무나 아름다웠던 지난 만남을 떠올리며



대한항공 사회봉사단

찬 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계절입니다.

부쩍 추워진 날씨 가운데 겨울을 맞이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어쩐지 궁금해집니다. 밥은 잘 먹는지, 보채지는 않는지, 아프다고 많이 울지는 않는지... 까만 눈망울에 담긴 아이들의 순수함이 새삼 그립습니다.

지난 9월 재단에서 초대한 여러 소아암 어린이들과 가족분들이 제주도 정석비행장을 방문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두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소중한 인연이었기에, 시간이 흘러도 저희 모두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첫 만남에서 만난 아이들의 표정은 힘들게 투병생활을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밝은 모습이어서 보는 이의 마음을 감동 시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제주도 정석 비행장에서 모형비행기를 조종하는 호기심 어린 표정들에서 또래 아이들답게 에너지가 넘쳐흐르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곧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계속 키워나갈 것을 약속드리며 아이들의 티 없이 밝고 천진한 웃음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여는 힘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들에게 띄우는 가을편지

세현아!

엄마랑 하늘 한번 쳐다볼까?

하늘이 너무 푸르고 아름답다. 그치?

내가 몸을 병마와 싸울 당시만 해도 엄마는 이렇게 편한 맘으로 너와 함께 가을 하늘을 바라 볼 날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단다.

그 누구보다 건강해서 쫓 한번 울리지 않고, 감기도 약 없이 거뜬히 이겨내던 네가 소아암이란 진단을 받았을 때, 엄마는 눈앞이 깜깜해지고 땅속으로 하염없이 빠져드는 절망감을 맛보았단다.

나름대로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왜 내게, 왜 내 아들에게 이런 일이 생겨야 하는지 하늘

을 많이도 원망했었단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다

큰 사람들도 모두 엄마같은 심정이었겠지? 그

리고 우리만 예외여야 한다는 법도 없고. '

그래, 현실을 받아들이자 그리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자' 생각하니까 한결 마음이 편해지더구나.

하지만 지금도 가슴이 아픈 건, 척수검사를

위해 긴 주사바늘을 척추에 꽂을 때 '엄마

살려 줘'하며 눈물 그렁한 눈으로 엄마를 바라

보던 애절한 그 눈빛, 그 표정... 어른 서너 명이

네 작은 몸을 붙들고 누르는 데도 얼마나 울며 몸부림

을 치던지 침대가 들썩였고, 새우처럼 고부라진 네 몸을 있는 힘껏 누를 수밖에 없었던 그때의 그 광경이 지금도 생생히 떠올라 엄마 가슴은 미어지듯 아프구나.

'엄마 엄마'하며 목 놓아 우는 너를 붙잡고 너대신 아파주지 못하고, 이 끔찍한 상황에서 널 벗어나게 해주지 못하는 나 자신이 미워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단다. 마음속으로 '널 살리기 위해서 이런단다.'를 외치며 그 고통스런 상황을 참고 또 참아냈단다.

세현아!

엄마는 우리 세현이가 행복한 아이였으면 좋겠다.

공부 잘하고 엄마 아빠를 자랑스럽게 하는 아이도 좋겠지만, 엄마는 세현이가 건강하고, 작은 일에도 웃고 행복해 할 수 있는 마음이 부자인 아이였으면 좋겠다.

글자 한자, 숫자 하나 더 알기보다 친구들과 맘껏 뛰어놀고, 자유롭게 공부하라고 유치원에 보냈고, 네게 더 많은 것, 더 즐거운 것

을 보여주기 위해 만삭의 몸으로 여기저기 함께 쫓아다녔지. 그런 엄마를 보고 다른 사람들은 뭐라 생각했을까? 어쩌면 주책이라고 흉봤을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엄마는 그런 것 신경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파리 동물들을 보며, 또 토실토실 알밤을 주우며 해맑게 웃던 네 모습을 보았으니까. 엄마는 그걸로 족하단다. 이 정도면 좋은 엄마 자격 있지?

세현아!

엄마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단다.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소원인데 엄마 소원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미스코리아처럼 예뻐지는 것도 아니란다.

엄마 소원은 단 하나, 엄마가 늙어 호호할머니가 될 때까지 아니 엄마 생이 다하는 날까지 '세현이 엄마'로 불리는 거란다. 그러려면 우리 세현이가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야 되겠지? 그래야 엄마 소원인 '세현이 엄마'로 오래오래 불릴 수 있을 테니까.

세현아!

엄마 아빠는 세현이가 엄마 아빠 아들이어서 얼마나 감사하지 모른단다.

울 때도, 웃을 때도, 잠잘 때도, 심통 부릴 때까지도 사랑스런 아들이! 이제 다음 달 동생 꽃님이(세현이가 지은 동생 태명)가 태어나면, 힘겨운 시련을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는 동화 속 주인공처럼 우리 가족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자꾸나.

다시 찾은 내 보물아!

엄마 아빠는 널 사랑한단다.

이 세상 무엇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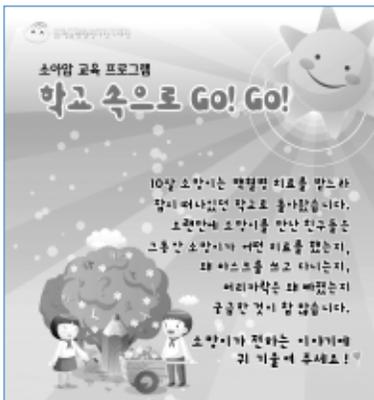
세현이를 사랑하는 엄마가

워 글은 2004년 '양력모세포종으로 진땀받은 5살 세현이의 어머니께서 세현이에게 띄운 편지입니다.

세현이는 현재 치료를 마치고 정기적인 의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귀여운 세현이의 남동생이 태어났다고 합니다~ ^^

소아암 교육 프로그램

학교 속으로 GO! GO!!



급성림프구성백혈병을 앓고 있는 15살 영희는 동급생들이 모두 참석하는 수학여행에 동참하지 못했습니다. 치료가 거의 끝나가 수학여행 정도는 참석할 수 있는 컨디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짝입니다. 이유는 학교에서 영희에게 수학여행에 불참해 줄 것을 권유했기 때문입니다. 양한자인 영희가 수학여행에 참석했다가 현지에서 아프거나 다치기라도 하면 발생하게 될 위험을 학교 측에서 떠맡기 싫어서 그러한 권유를 한 것입니다.

결국 영희는 수학여행 기간 내내 집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뇌종양 치료를 받은 9살 지선이의 반 친구들은 마스크를 쓰고 있는 지선이와 같이 어둡다면 같은 병에 걸릴지도 모른다 생각하여 같이 놓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머리카락이 없는 지선이를 놀리기까지 했습니다.

소아암 환자의 대부분은 장기치료로 인해 장기결석 또는 휴학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들 중 많은 수가 치료 후 학교로 돌아갔을 때 위와 같은 상황을 겪기도 합니다. 이는 환자의 학교 급유 및 교사의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이해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밖의 소아암 환자의 학교 적응에 관한 어려움은 2004년 본 재단에서 실시한 [소아암 환자 학교적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조사]의 다음과 같은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질병에 대하여 학교 교사 및 주변에 설명할 때, 자료 부족으로 인한 논리적 설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37%)
- ▶ 소아암 교육자료 제작 시 활용할 의사가 있다. (85%)
- ▶ 바람직한 활용 모형은 소아암 담당 사회복지사가 소아암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81%)

소아암 어린이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욕구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는 소아암 교육 자료의 제작 및

● 소아암 환자의 반 친구와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자료를 활용한 사회복지사의 교육이 소아암에 대한 올바른 정보전달, 편견감소,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이해증진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소아암 환자의 원활한 학교적응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재단에서는 신한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아동의 이해 수준에 맞춘 소아암 교육 영상물 “소망이의 희망일기”를 제작하여 재학 중이거나 복교를 앞둔 소아암 환자의 급우 및 담임교사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소아암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 프로그램, “학교 속으로 GO! GO!!”를 마련하였습니다.

“학교 속으로 GO! GO!!”는 소아암 환자의 급우 뿐 아니라 소아암에 대해 자세히 알기를 원하는 전국의 초등학교 학생과 담임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문의를 바랍니다.

※ 교육에 활용 될 영상물 ‘소망이의 희망일기’는 재단 홈페이지(www.kclf.org) 내 영상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및 문의전화

재단 사무국	☎ 02-766-7671~3
신촌 우체국 <small>헌사랑의집</small>	☎ 02-363-7671 / 02-393-7671
대구 우체국 <small>헌사랑의집</small>	☎ 053-253-7671
부산 우체국 <small>헌사랑의집</small>	☎ 051-244-7677
전남 우체국 <small>헌사랑의집</small>	☎ 061-375-7671

행복을 전하는 마술사, 순찬이에웃!!



1998년 봄은 제 인생의 길이 달라진 특별한 해입니다. 또래보다 조금 왜소했던 저는 성격도 내성적이어서 눈에 잘 띄지 않는 조용한 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된 기침감기가 6학년 초가 되어도 나를 기미가 보이지 않자 어머니는 폐렴일지 모르다며 병원에 가 X-레이 검사를 해보자고 하셨습니다. 큰일이 아니려니 하고 찾은 동네 병원에서 다시 큰 병원으로 가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바심이 났고, 부랴부랴 큰 병원을 찾아 간 것이 저의 입원 생활의 시작이 되어 버렸습니다.

처음 병원에 도착해 바로 입원을 했고, 얼떨떨한 상태에서 다음날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고 무슨 검사를 하는지,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정말 어리둥절할 따름이었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에 엄마 얼굴을 보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도 납니다.

병실을 둘러보니 나보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도 생겼습니다. 하지만, TV를 통해서만 보아왔던 힘들게 치료를 하고 있는 아이들과 같은 병에 걸린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병원생활... 나는 바늘을 꽂을 때 마다 소리를 지르고 울기로 유명했답니다. (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ㅋㅋㅋ) 가장 아팠던 건 아무래도 척추검사, 그리고 항암치료 도중 약물이 혈관을 새어나와서 부어있는 손에 바로 해독제 주사를 맞았을 때로

기억됩니다. 아직도 오른 손등에 자국이 남아있거든요. 그러던 중 언젠가 웃으면 면역수치가 올라간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그렇게 울보였던 제가 아침마다 피검사를 할 때도 울지 않게 되었습니다. 웃지는 못해도 일부러라도 기분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약도 꼬박꼬박 빠지지 않고 먹으려고 했고요.

힘든 치료생활에도 즐거운 일은 많았습니다. 병원식구들끼리 모여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꼬맹이들이랑 놀았던 일, 모두들 링거 달고 휠체어 타고 공원으로 놀러 갔던 일은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아프기 전에는 아무렇지 않던 일들이 병원에서는 정말 소중한 특별한 일처럼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고 웃으며,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입원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입원치료가 끝나고 잠시 떠나있던 학교로 돌아왔습니다. '학교생활 적응'이란 문제는 제가 넘어야 할 또 하나의 장벽이었습니다. 다시 6학년으로 돌아가 한 살 어린 아이들과 함께 학교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 가뜩이나 내성적이었던 저를 참 많이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도 중학교에 가서는 모르는 아이들이 많아 그런 부담감에서는 벗어날 수 있었고 적응하기가 훨씬 쉬었던 것 같습니다.^^

치료 끝날 무렵 찾아온 당뇨... 이로 인한 음식조절이 저에게는 큰 숙제였습니다. 지금은 음식조절로부터 많이 자유로워진 편이지만 그래도 음식조절은 제가 평생 안고 가야할 숙제로 남겨졌습니다.

배 순 찬

1986년 4월 16일생

1998년 4월 악성림프종 진단

1999년 5월 치료종결

영남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1학년 재학 중

저는 또래들과는 약간 다른 특별한 취미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마술'입니다. 마술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 마술동아리 '비화'를 친구 두 명과 함께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후배들도 거느리고 공연과 봉사를 다닐 정도로 실력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마술이 다른 사람들에게 웃음과 행복을 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매력을 느꼈고 대학생이 된 지금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창 치료 중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항상 '좋은 생각'을 하려고 스스로 노력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즐거운 생각을 하면 아픈 기억도 사라지게 되고 병원 생활도 재밌게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저의 경험으로는 그러했답니다. 그리고 약은 미루지 마세요. 당장의 쓴 맛을 피하기 위해 한 번 두 번 미루다보면 갈수록 약 먹기가 힘들어지고, 효과도 잘 안 나타나는 것 같아요. 또 음악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거든요. 병원에 있는 동안 공부에 대해서 심각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병원에 있을 때는 지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을 더 풍요롭게 하는 것이 치료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와 좋은 음악, 그리고 즐거운 생각들이 다른 어떤 치료약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즐거운 생각으로 나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생각으로 씩씩하게 하루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세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병원을 찾은 순찬군을 비롯한 마술부 '비화'팀은 경북대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친구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물해주고 계십니다. 특히 힘든 치료를 이겨내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순찬군의 모습을 통해 환아와 가족들은 즐거운 이상의 희망을 가지시는 것 같습니다.

한창 꿈이 많은 우리 아이들, 순찬군의 모습을 보면서 마술사의 꿈을 키워가기도 한답니다? ^^

힘든 치료의 기억이 있는 병원이 마냥 싫을 수도 있을 텐데, 아이들을 위해 매년 멋진 공연을 준비해오는 순찬군과 '비화'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헌사랑의 집에서는...

서울 우체국 헌사랑의집

풍성한 추석 -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서울 쉼터가 그러했습니다.

여러 고마운 분들이 쉼터 가족분들을 위해 선물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재단의 홍보대사 이승환님이 대표로 계신 구름물고기에서는 무공해 배를 한가득, 우리 아이들의 가발을 후원해 주고 계신 하이모에서는 참치세트를, 한 환아 어머니께서는 마른 오징어를 한아름 보내주셨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여러 분들 덕분에 쉼터 가족들의 마음은 더 풍성해 졌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조혜린 >



대구 우체국 헌사랑의집

천연재료로 비누와 화장품만들기 체험

대구 헌사랑의 집에서는 10월과 11월, 소중한 인연을 통해 특별한 체험의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허브누리에 계신 맹미영 선생님께서 아이들과 어머님들께 ‘천연재료로 비누와 화장품만들기’ 체험 시간을 만들어주셨습니다. 난생처음 보는 비누와 화장품 원료들, 다양한 허브향기들과 도구들에 모두들 푸욱 빠져들었습니다. ^^ 다양한 모양의 귀여운 비누들과 자신의 사진이 들어간 신기한 비누, 겨울에 입술을 촉촉하게 해줄 립밤, 녹차 스킨과 콜라겐 로션,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에 삼푸까지 거의 매주 수요일 오후마다 작은 체구에 커다란 재료가방을 들고서도 밝게 웃으며 들어오시는 선생님 덕분에 헌사랑의 집 가족들은 몸도 마음도 행복바이러스에 전염되었답니다.

항암치료로 인해 피부도 연약해지고 민감해지는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늘 아이들 곁에서 간병이 일상의 전부였던 어머님들께겐 생활의 신선한 활력소가 되었구요.

아이들과 어머님들을 위해 매 시간마다 아낌없이 재료를 가지고 와 모두 나누어주시고, 긴 시간 이어지는 프로그램 진행으로 고생하시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시던 미영선생님~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헌사랑의 집 가족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행복한 추억들이 만들어졌습니다. ^^

< 담당 사회복지사 하정연 >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추석맞이 연극관람 ‘도덕적 도둑’

추석을 앞둔 지난 9월 28일, 대연동에 위치한 SH공간 소극장에서 소아암 가족들과 함께 연극관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작시간을 맞추지 못할까봐 헬레벌떡 뛰어오는 모습, 시작을 기다리며 약간은 상기된 아이들의 모습과 함께 기대에 찬 연극의 막이 올랐습니다.

배우들의 재미있는 연기와 다양한 무대효과 및 음향효과, TV나 영화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연극 소재들로 우리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배우들과 함께 사진촬영을



하며 공연관람을 마무리 했습니다. 이날 뜻 깊은 시간은 한가위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추억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미술치료 프로그램 Start !

부산 한사랑의집에서는 9월 25일부터 매주 1회씩 총 12회가 진행되는 미술치료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술치료 활동은 소아암 투병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스스로 표출하고 긍정적인 자기 이미지 형성과 치료 의지를 북돋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미술치료사는 직접 아이들과 함께 활동 하면서, 아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정서적 반응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하며 아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열어 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가지고 있던 스트레스를 맘껏 해소하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한걸음 더 성숙해지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당당히 이겨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주세요.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이정민 >



전남 우체국 한사랑의집

일석이조 “풍선아트”

드디어 보호자를 위한 ‘풍선아트’ 프로그램이 신설되었습니다. 장기간 아픈 아이를 간병하고, 무료한 병원 생활로 지친 보호자에게 잠시나마 ‘쉽’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입원실 옆 휴게실에서 매월 두 차례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접하는 프로그램이지만 풍선과 펌프만 있으면 멋진 칼, 우아한 백조모자, 맛있는 사과, 귀여운 무당벌레 등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모두들 즐거워하였습니다.

보호자는 여가시간을 활용하고, 아이들은 멋진 선물도 받을 수 있는 ‘풍선아트’ 프로그램은 모든 이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특별한 시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아암 환자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찾아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 담당 사회복지사 소상미 · 정옥 >



2006 한사랑 문화체험 풍경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 1박 2일간 KRA가 후원하는 2006 한사랑 문화체험이 전국에서 모인 160여명의 소아암 가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용인 에버랜드의 다양한 놀이체험, 숲 속에 오בות이 자리 잡은 에버랜드 캐빈호스텔 통나무집, 밤 농원에서의 밤 줍기 체험, MBC문화동산에서 연예인들과 함께하는 가족 장기자랑까지 우리 아이들과 가족들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행사를 후원해주신 KRA와 먼 거리 마다않고 오셔서 성실히 봉사해주신 부산지역 자원봉사자님들, 치료를 마치고 든든한 일꾼으로 활약해준 대구지역 준기, 희준 청년까지...

행사를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모이는 곳

2006 희망나무가 자라는 모습



지난 10월 24일, 우리 아이들의 희망나무가 자라고 있는 영흥화력본부 생태공원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의 희망동산을 꾸미기 위해 2006 희망나무들이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했다는 소식을 듣고 새로 자리 잡은 곳도 궁금하고, 나무가 자라고 있는 모습도 궁금한

마음에 한달음에 달려가 사진에 담았답니다.

1미터 남짓 거리를 옮겨간 곳엔, 2005 희망나무와 함께 울해 심은 나무들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2007, 2008.... 해를 더할수록 푸르려질 희망동산을 생각하니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푸르름을 더해가며 쑥쑥~ 자라나는 나무들처럼 우리아이들의 희망과 꿈도 무럭무럭 커 나가길 바랍니다.

가까이서 우리 아이들의 희망나무를 정성으로 살펴주고 계신 영흥화력본부 임직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삼성SDS 1m1원 마라톤 대회



지난 1997년부터 삼성SDS 임직원은 마라톤 주자가 1m를 뛸 때마다 1원씩 모금하여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올해로 10년을 맞이했고, 그 기념으로 삼성SDS 임직원 500명과 소아암 완치자 및 소아암 어린이 부모님이 함께 마라톤에 참여하여 10Km를 완주하였습니다.

금번 행사를 통하여 2,500만원을 본 재단으로 기부해 주셨으며, 또한 이번 행사에 함께한 소아암 어린이 가족의 이름으로 100만원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후원하였습니다. 강산이 변하고도 남은 10년이라는 긴 기간동안 소아암 어린이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신 삼성SDS 임직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소책자 시리즈 추가발간

재단은 정보지원사업의 하나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간된 소책자를 소개합니다.



소아백혈병의 치료(개정판) 조혈모세포이식 간세포포종의 치료 조직구충의 치료

진단명별 소책자는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서 감수하였으며, (주)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소책자는 무상 배부되며, 재단 사무국 및 각 지역별 우체국 헌사랑의 집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주)포스코건설 소아암 어린이 후원금 전달



11월 15일, (주)포스코건설에서는 임직원들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통해 모아진 후원금 1,570만원을 재단으로 전달해 주셨습니다. 본 후원금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KTX 타고 소아암 어린이 가을 나들이

10월 31일,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은 가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및 뿌리공원 관람을 하면서 따스한 가을햇빛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단풍을 바라보



고 신선한 가을공기를 호흡할 수 있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행사 후원과 함께 하루 종일 아이들의 손발이 되어 봉사해 주신 한국철도공사 임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회 소아암 어린이 제주체험 - 푸른 바다, 희망 충전



9월 12일 제1회 소아암 어린이 제주체험이 시작된 날.

이른 아침 김포공항에 희망에 가득 찬 소아암 어린이 18명과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대한항공의 배려로 객실훈련원 내에서 아이들은 승무원이 받는 안전 교육도 받고, 객실훈련원 내 여러 곳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준비해 주신 맛있는 점심을 먹고, 제주도로 출발~ 제주도에 도착하니 문치이벤트투어의 허영신 이사님, 고영신 팀장님 그리고 한국관광공사에서 반겨주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생동감 넘치는 마상쇼, 푸르고 향긋한 오솔록 박물관, 한국관광공사의 배려로 진행된 제주도 설명과 함께 시원하고 멋진 중문 골프장 체험(볼을 찾기 시간을 가장 좋아하셨는지요? ^^), 아기자기한 테디베어 박물관, 너무나도 투명한 우도 바다 체험, 아이들에게 파일럿의 꿈을 실어준 대한항공 정석 비행장 체험, 제주신라호텔에서의 편안한 휴식 등 이루어 다 말할 수 없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소아암 아이들에게 제주도에서 원치의 희망을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신 대한항공, 한국관광공사, 신라호텔, 몽치이벤트투어 관계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음악회



뜨거운 마음을 가진 삼성 임직원들의 음악 모임.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올해로 4회째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로 우리들의 마음에 감동을 전하는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원들은 2003년부터 매년 소아암 어린이 돕기 음악회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소아암 어린이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병원을 방문하여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작은 음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고운 마음을 지닌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63시티와 함께하는 '남경주의 올댓뮤지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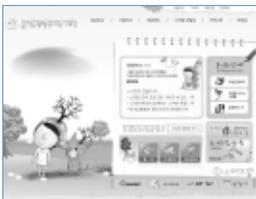
10월 3일.

(주)63시티의 초청으로 뮤지컬 하이라이트 갈라쇼 '남경주의 올댓 뮤지컬'을 관람하였습니다.

40여 명의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함께한 이 날 행사는 맛있는 저녁 식사와 멋진 공연으로 힘겨운 치료를 받느라 많이 지친 소아암 환아들에게 즐거움을

주었고 간병을 하느라 힘들었던 가족들에게 쉼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소아암 환아와 가족들이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63시티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홈페이지 새 단장~!!!



재단 홈페이지가 12월 새 단장을 하였습니다.

궁금 하시да구요?

www.kclf.org 로 빨리 놀러오세요~

새롭게 바뀐 홈페이지는 소아암 환아 가족이 보다 수월하게 유익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자주 들려주세요~

기업은행노동조합의 추석선물



기업은행노동조합에서 소아암 환아를 위한 추석선물로 생활용품을 보내 주셨습니다. 쉼터에서 생활하는 소아암 환아와 보호자들에게 꼭 필요한 생활용품을 지원해 주신 기업은행노동조합의 세심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삼성생명과 함께한 서울역사박물관 관람

9월의 중턱, 청명한 가을하늘을 자랑하는 날들이기 딱 좋은 계절에 소아암 가족들은 광화문 서울역사박물관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삼성생명 여의도지점의 후원으로 고구려 특별전을 관람하기 위함이었죠.^^

박물관 관람, 궁중의상을 입어보기, 주몽 포스터 앞에서 포즈 취하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관람 후에는 고구려에 관한 퀴즈를 풀어 정답을 맞힌 친구들은 멋진 선물도 받았답니다. 함께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삼성생명여의도지점 봉사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헌혈증

하나,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소아암 어린이를 돕기 위한 헌혈행사를 통해 모아진 소중한 헌혈증을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두울, 알리안츠생명 신우회와 아가페회

여러분들께서는 한 장 한 장 소중하게 모아주시는 헌혈증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재단으로 기증해 주셨습니다. 1996년 시작된 소아암가족 쉼터였던 "제일생명의 집" 인연을 시작으로 알리안츠생명으로 거듭난 후에도 소아암 어린이 돕기 활동을 펼쳐시고 계시는 알리안츠생명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내주시는 헌혈증을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소중히 쓰겠습니다."



초 / 대 / 합 / 니 / 다

소아암 어린이 사진전 미.소.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아암 어린이의 미소가 보고 싶으신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06년 12월 27일 ~ 2007년 1월 2일
- 전시 문의 : 02)766-7671
- 장소 : 토포하우스(종로구 관훈동 소재)
- 후원 : KRA (한국마사회)

특별기금 지원 환아 소개 (2006. 9. ~ 2006. 11.)

삼성SDS '1m 1원 마라톤' : 각 700만원

- 황재상 (급성림프구성백혈병/국립암센터/전남)
- 황인섭 (재생불량성빈혈/아주대병원/경기)
- 서성민 (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 박선정 (비호지킨림프종/서울아산병원/전북)
- 서대한 (신경모세포종/여의도성모병원/경기)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 각 500만원

- 남대양 (결체조직연골육종/서울대학병원/전북)
- 황동환 (뇌종양/서울아산병원/충북)
- 김민지 (재생불량성빈혈/여의도성모병원/경기)
- 공대호 (급성골수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법무법인 태평양 여자변호사 모임 : 750만원

- 이신희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충북)

메릴린치증권 : 700만원

- 이준수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서울)

토탈소프트뱅크 : 400만원

- 정수진 (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병원/부산)

KRA 기금 : 300만원

- 김성현 (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차카게살자기금 : 300만원

- 이경훈 (유잉육종/원자력병원/부산)

중앙일보기금 : 각 100만원

- 이준석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신다운 (뇌종양/서울대병원/광주)

우체국 혼사랑기금 : 각 300만원

- 정수진 (급성림프구성백혈병/부산대병원/부산)
- 최민재 (골수이형성증/서울대학병원/경북)
- 정은수 (횡문근육종/서울대학병원/부산)
- 신정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강원)
- 지우빈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김지섭 (월름씨종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신정호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학교병원/강원)
- 지우빈 (급성림프구성백혈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김지섭 (월름씨종양/여의도성모병원/경기)
- 오서연 (유잉육종/경북대학병원/대구)
- 이지희 (뇌종양/경북대학병원/대구)

양진의료재단 : 100만원

- 김성현 (급성골수성백혈병/삼성서울병원/경기)

이래기금 : 각 100만원

- 서성민 (골육종/원자력병원/전남)
- 우상훈 (뇌종양/대구파티마병원/대구)

배재의료기금 : 각 100만원

- 이경훈 (유잉육종/원자력병원/부산)
- 이윤아 (골육종/서울대학교병원/경기)

하나증권 : 각 매월 30만원(12개월)

- 김건희 (신경모세포종/동아대의료원/부산)
- 김지원 (급성림프구성백혈병/서울대병원/서울)

환수금

- 정은수 (횡문근육종/서울대학병원/부산) 100만원
- 박소연 (급성골수성백혈병/서울대학병원/제주) 1,413,190원

한나의 선물

저자소개

머라이어 하우스덴(Maria Housden)

- 1995년~1999년 김벌리 재단(불치병 아이들을 위한 기금 마련단체) 이사 활동
- 현재 교회, 시민 단체, 학생, 의료인 대상으로 말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연 활동

소개의 글

2002년 12월, 책을 소개하는 TV프로그램을 통해 접하게 된 “한나의 선물”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고 한다. 제 살을 떼어내는 아픔보다 더한 고통, 평생을 두고도 지울 수 없는 슬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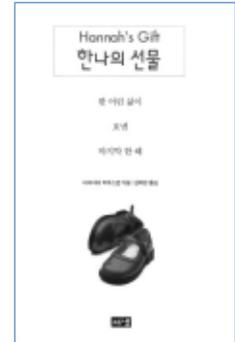
그 크기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분들의 아픔에 선부른 위로의 말이 오히려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되어 소리 없는 울음을 토해내는 부모님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조심스럽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것 또한 조심스럽다. 하지만 아이의 재발 후 이 책을 읽고 오히려 긍정적으로 치료과정과 생활을 해나가게 되었다는 한 어머니의 말씀에 용기를 내어본다.

저자는 딸 한나가 네 살도 되기 전에 소아암으로 세상을 떠난 기억을 안고 살아가는 한 어머니이다. 딸을 보내고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낸 후에야 저자는 딸과의 마지막 1년을 글로 남겼다. 짧지만 충만했던 한나의 삶을 통해, 그리고 한나와의 이별 후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 깨달은 삶의 진정한 의미를 잔잔하게 들려준다.

이 책을 통해 삶이란 진정 무엇인지, 우리가 잇고 사는 삶의 소중한 가치들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마도 그것이 ‘충만한 삶’을 살고 간 한나가, 그리고 또다른 한나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선물일 것이다.

(정민영 사업과장)



목 차

프롤로그

Truth | 귀머거리에게 속삭이기

Joy | 아주 평범한 순간들

Faith | '달을 뛰어넘는 소'

Compassion | 슬픔의 양파 껍질을 벗기며

Wonder | 꿈을 직조하는 사람

에필로그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얼마나 오래 살았는가 아니라, 얼마나 충만한 삶을 살았는 하는 것이다.”

“그때에 두 분이 갖고 있는 정보 범위 안에서 내릴 수 있는 최상의 결정을 내리십시오. ‘그때’가 중요했습니다..... 그때 이걸 알기만 했더라면, 저걸 알기만 했더라면 하며 머리를 쥐어뜯는 사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두 분이 그때 그걸 모르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냥 계속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어’ 라고요.”

본문 중에서

오랫동안 소아암 어린이와 함께하고 있는 나눔터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이월드 미니홈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타운
(<http://town.cyworld.com/kclf>)



재단의 1촌이 되어 소아암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알리고, 소아암 어린이의 수호투사가 되어주세요~

★해피빈의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해피로그~



재단의 해피로그가 문을 활짝 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의 해피로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들을 후원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주)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주)롯데닷컴에서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통해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지속적인 후원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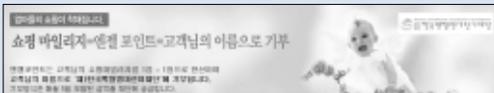
(주)롯데닷컴 홈페이지에서 '롯데닷컴과 함께 하는 희망클릭' 이벤트를 만나보세요~

★The Fine~ 파인카드

2006년에도 계속될 'The Fine 카드'의 나눔 문화에 여러분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맘스 다이어리 엔젤포인트

육아포털사이트 맘스다이어리는 육아쇼핑몰 [맘스쇼핑몰]에서 고객이 물건을 구입할 때 발생하는 포인트를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기부할 수 있는 '엔젤 포인트' 기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http://www.momsdiary.co.kr/> 에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롯데마트



롯데마트 서울역 지점을 이용하시는 분들께는 물건을 구입하신 후 꼭~ 마일리지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 기부하고 가세요~ 마일리지를 기부하셔도 고객 분의 마일리지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신한카드사의 아름다운 카드



아름다운 카드는 사용 시 결제 액의 0.5~0.8%의 아름 포인트가 적립되어 고객이 원하는 기부처에

기부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기부 전용카드입니다.

★2006년에도 계속됩니다.
KT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



KT 캠페인 '집전화로 희망을 거세요'에 참여하시면 집전화를 사용할 때마다 요금의 일정액이 적립되어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희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 신청방법 : 하나, 무료 전화 1516으로 전화하기
두울, 생명전화 중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선택하기

★파파프로덕션의 따뜻한 공연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 공연장에는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함과 리플렛을 비치하고 소아암 어린이를 위한 모금활동을 계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현혈증을 기증하면 공연을 30% 할인된 가격으로 관람할 수 있는 I♥Donation 캠페인도 펼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연극 [라이어] 수익금의 1%는 소아암 어린이를 위해 기증됩니다.

파파프로덕션의 아름다운 공연 [미스터 마우스]와 [라이어]에 재단 가족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동 받았어요...



이경진
삼성필하모닉오케스트라 단장

늦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 11월이 오면, 우리는 한 해 동안 준비한 정기연주회를 준비한다. 4년전 음악을 좋아하는 삼성인들이 모여서 시작한 오케스트라는 어느덧 4번째 연주회를 마치고 막 걸음마를 댄 아이와 같이 성장하였다.

창단연주회를 준비하던 중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지만, 이를 통해 무언가 의미 있는 일을 하면 좋겠다는 작은 마음들이 모여서 시작하게 된 백혈병어린이돕기 자선음악회... 정작 우리는 그저 우리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는 것이지만, 연주회를 통해 모인 성금으로 꺼져가는 작은 생명들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무척이나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매서운 바람이 부는 추운 날이었는데도, 창단연주회를 보러 온 아이들과 부모님들은 모처럼 만의 나들이에 설레는 마음으로 공연을 관람하였고 이를 통해 아이들이 밝아졌다는 소식은 우리들의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해주는 소식이었다.

‘감동 받았어요...’ 두 번째 연주회가 끝나고 찾아간 소아암 병동에서 아이들을 위한 연주를 하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던 그날.... 그 자리에 있던 한 친구가 했던 말이다. 정말 작은 노력

으로 작은 일을 한 것인데, 아이들이 또 언제 오냐고 물어보고, 작은 공간으로 인해 미처 공연장에 들어오지 못한 친구들은 문 밖에서 연주를 들었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아이들에게 잠시라도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토록 아름다운 일이었는지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다.

연주회가 끝나고 식후행사 자리에서 고맙다며 꽃다발을 전해주고, 함께 완치의 각오를 다졌던 소년이 이제는 사춘기를 맞이한 어엿한 모습으로 얼마 전 연주회장장을 찾았다. 완치되어 검정고시 합격으로 고등학교에 진학해 열심히 생활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주었다.

우리가 가진 작은 능력으로 이토록 세상을 따뜻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어찌면 각박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더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우리들 모두의 희망이고 꿈인 아이들이 어서 빨리 낳아서 밝고 아름답게 세상을 살아가길 바라며, 곧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때 아이들에게 무슨 곡을 들려줄까하는 행복한 고민으로 벌써부터 설렌다....



"김장 배추가 참 이쁘다."

"배추가 예뻐서? 왜 예뻐는데?"

"속이 이리렇게 노랗고 아드아드한게 예뻐볼거지."

"엄마가 더 이쁘다. 하하"

♥ **한뜻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

(2006. 9. 1 ~ 2006. 11. 30 / 가나다순입니다)

김영미 장정개 한국증권정보연구소

◆ 2006년 11월 30일까지 791분이 한뜻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 **만세후원자 소식** ♥

신규후원자 소개

(2006. 9. 1 ~ 2006. 11. 30 / 가나다순입니다)

권정기 김기태 김선경 두암동물병원 목혜경 신준걸 신호열
윤승연 이현정 정선희

◆ 2006년 11월 30일까지 1,852분이 만세후원자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새로 신청해 주신 후원자님, 이미 후원자가 되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후원계좌안내

- 국민은행 : 001-01-2353-890
- 기업은행 : 090-000260-04-015
- 농협 : 029-01-176943
- 우체국 : 012989-01-003327
- 신한은행 : 310-03-002396
-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후원금을 자동이체로 납부해주고 계시는 만세후원자님께서도 편리한 CMS로 후원금을 납부하세요!

-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용 후원금 납입 영수증 발급 안내

- ◆ 후원금을 CMS방법으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자동 발급되어 발송되며, 자동이체나 지로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연말정산 영수증 “신청하기” 클릭 후, 해당 항목들을 적어 신청하시면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 · 발송해드립니다.
- ◆ 후원금 영수증은 12월 초 일괄 발송할 예정이며, 12월 20일 전후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혹시 12월 20일 이전에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후원자님께서는 재단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 ◆ **후원자 정보수정**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인정하는 후원금 영수증 서식이 변경되어 후원자님의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우편물 수령처)가 필수로 기재되어야 하오니, 후원금을 **지로나 자동이체**로 납입해 주시는 후원자님께서는 연말정산 영수증 신청 시, **필히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사백 이식비 지원 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는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2006. 9. ~ 2006. 11.)



김영민
중증재생불량성빈혈 / 삼성서울병원 / 대구
2006년 10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세흐나
버킷림프증 / 서울대학병원 / 서울
2006년 10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다원
급성골수성백혈병 / 여의도성모병원 / 전북
2006년 11월 형제간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민호
급성골수성백혈병 / 서울대학병원 / 제주
2006년 11월 타인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진수빈
수모세포증 / 서울대학병원 / 전북
2006년 1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김현성
수모세포증 / 서울대학병원 / 경기
2006년 1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승민
비호지킨림프증/한양대학병원/서울
2006년 12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오하나
악성림프증/화순전남대학교병원/전남
2006년 12월 동종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안지찬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서울대학병원 / 서울
2006년 11월 제대혈이식 시행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6년 11월 30일 현재)

참여후원자 : 3,204명 구좌수 : 17,126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6. 9. 1 ~ 2006. 11. 30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입니다.)

국민은행 CMS	김진희 박창균 서준영 이순남 이지영 조재숙 황세미
기업은행 CMS	김광열 김미영 김영신 최영준
농협 CMS	김미란 박지현 유진영
새마을금고 CMS	김은아
부산은행 CMS	김현주 임삼미
우리은행 CMS	김진영 김희선
신한은행 CMS	신정휴
하나은행 CMS	김두석 김은숙 이학진 허윤주

후원계좌안내

- 경남은행 : 514-07-0175564
- 광주은행 : 200-107-315315
- 국민은행 : 031-01-0414-356
- 기업은행 : 090-000260-04-022
- 농협 : 029-01-170940
- 대구은행 : 004-05-179828-001
- 부산은행 : 070-01-021379-8
- 외환은행 : 141-22-00799-6
- 우리은행 : 112-04-112571
- 우체국 : 012989-01-003313
- 제일은행 : 225-20-385050
- 신한은행 : 367-01-192434
- 하나은행 : 144-121835-00105
- 씨티은행 : 100-59711-251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 천사백 후원자님께서도 후원금을 편리한 CMS로 납부하세요!!!

CMS방식이란, 은행에 직접 가서 납부하시는 기존 방식과는 달리 재단 사무국으로 후원 자님의 주민등록번호, 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매월 일정한 날짜(15일)에 알려주신 통장에서 약정하신 후원금이 출금되는 방식입니다.

★ CMS를 신청하시면 이전접대비 좋아요!!!

1. 매년 인상되는 지로수수료와 우편발송요금이 절감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실수 있습니다.
2. CMS는 자동이체 기간을 별도로 연장하실 필요가 없으며, 해지 및 변경을 원하시는 후원자님께서도 재단사무국으로 변경하실 정보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 02-766-7671~3 / E-mail : cancer@kclf.org)
3.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연말정산용 후원금 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후원자님께 발송됩니다.



사랑의 모음터



사랑의 헌혈증서 (2006. 9. 1 ~ 2006. 11. 30) ※()는 기증하신 헌혈증 매수입니다.

강습현 (20)	권진욱(2)	김은영 (17)	신용득(8)
알리안츠생명 신우희(28)	이종필(2)	정보훈 (46)	채성석(9)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사(60)	한상덕(8)		

♠ 특별 후원금

9월	(주)롯데닷컴	1,000,000			
10월	서울대병원새마을금고	1,000,000	이성원	1,200,000	(주)롯데닷컴 1,071,202
	GS칼텍스	160,000			
11월	솔이	100,000	전영주	1,000,000	조건치 1,000,000
	(주)롯데닷컴	1,083,845	(주)심플소프트	100,000	흥기영 300,000

♠ 후원물품 (2006. 9. 1 ~ 2006. 11. 30)

故임정수씨 오징어	기업은행노동조합 생필품	김세림 음료수	사랑터 식료품
서성혁 고등어	이용석 옥장판	(주)드림팩토리클럽 배	하이모 참치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6년 겨울호는  경기고등학교 동창회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